

〈제 530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광주북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4일 광주 북구청에서 북구 지역 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3천만 원을 출연하여 북구청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북구청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광주 북구청에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광주은행은

3천만 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1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도소매업·외식업·서비스업 등)으로 재단 또는 광주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보해양조

◆ 보해 봉사단 통해 얻은 것, 후배들과 공유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광주 전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젊은잇새 봉사단 출신 선·후배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봉사단 출신 선·후배가 만나 지난 활동들을 되짚어 보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보해양조를 응원하는 ‘위드 보해

프로젝트’를 통해 보해와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06년 보해양조가 광주전남 대표기업으로서 지역청년들에게 봉사와 문화탐방 등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취지로 설립한 젊은잇새 봉사단은 올해로 1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1,200여명이 참석했다.

<1433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3월15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를 초청 <행복의 기원>이란 주제로 제1433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인간은 왜 행복을 추구할까? 행복이 삶의 최종 가치이자 목적이지만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수단’이다. “행복 역시 ‘생존과 번식’을 위해 진화한 산물”이다. 또,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 인간”이며 “인간도 쾌감을 얻기 위해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년 동안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행복은 맛있는 음식을 씹는 순간, 돈과 명예, 건강, 젊음, 미모 등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는 관련이 적은 것 같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인데,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되면(becoming)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지금을 살아가는 순간(being)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연을 맺었다.



1. 노사 동향

■ 경사노위는 본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근로자위원 3명의 불참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 없이 종료

- 근로자위원 3명은 3. 7 본위원회에 불참한 데 이어 3. 11 회의도 불참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안)’ 등 본위원회 안건 의결 무산
- ※ 불참 근로자위원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참고 1] 본위원회 심의안건 주요 내용

<p>▲ 3개 합의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노동시간 제도개선委) -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사회안전망委) -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안)(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委)
<p>▲ 신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 (가칭)버스운수산업위원회
<p>▲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 전부개정(안)</p>

- 근로자위원 3인의 본위원회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경사노위는 본위원회를 조만간 다시 개최해 안건에 대한 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
- 이와 별도로 경사노위는 안건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탄력근로제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논의 경과를 3. 13 국회에 전달하고 경사노위 합의 결과를 존중해 입법해 줄 것을 요청
- ※ 한정에 의원(민주당)은 동 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3. 8)
- 또한 경사노위는 본위원회를 2번이나 무산시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개편 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 고용부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2. 19 합의된 탄력근로제 개선안의 취지와 세부 쟁점에 대해 설명
 - 합의안에 대해 일각에서 장시간 근로, 임금보전 담보, 미조직 사업장 근로자대표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제기

[참고 2]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주요 쟁점 설명

구 분	주 요 내 용
단위기간	▲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유지 하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를 별도로 신설
건강확보	▲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예외 인정 - ‘불가피한 경우’란 사업운영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로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해 구체화
도입·운영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주별 근로시간 사전 특정,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전 통보 ▲ 도입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주별 근로시간 변경 ex)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 미조직 사업장 등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선출하는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대표 자격 불인정
임금저하 방지	▲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신고 의무 예외 인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서면합의 사항에 임금보전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

- 한편, 고용부는 5월부터 주52시간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근로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
 - 5. 1 ~ 6. 15까지 사업장 3,000여곳을 점검하고 이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성 강조

-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동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유연성 강화 차원에서 탄력적 인력운용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
 -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임금격차 감소, 임금체계 단순화 필요성을 제기

[참고 3] 한국노총 2019년 단체교섭 주요 요구

구 분	주 요 내 용
경제 분야	▲ 양극화 해결을 위한 포용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생활비 경감,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르네상스 : 소재 및 부품산업 R&D 확대, 반도체 투자 확대 - 광주형 일자리 확산, 스마트 공장 확대 등 일터 혁신 - 벤처 지원 확대(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허용) ▲ 공정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노동 분야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 양극화 해소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확대 및 전직활동 지원 강화와 노동유연성 확대 -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의 임금인상률을 3년 내지 5년간 자제 -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 확대,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

○ 양 노총은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 발표(3. 11)

- 한국노총은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유연성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는 자본과의 타협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기아자동차 노사는 법원 판결기준 등을 반영해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잠정합의안 도출

-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는 3. 14 진행

[참고 4] 합의안 주요내용

- ▲ 1차 소송기간('08년 8월 ~ '11년 10월) 미지급 통상임금에 대해 개인별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정률로 '19년 10월 말까지 지급
- ▲ 2차/3차 소송기간 및 소송 미제기 기간('11년 11월 ~ '19년 3월)에 해당하는 미지급 통상임금은 1인당 800만원 정액으로 '19년 3월 말까지 지급
-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급주기 변경
 - 기존 상여금 750%를 600%는 매월 50%씩 지급하고 150%는 설, 추석, 하기휴가에 50%씩 지급

■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는 경남 거제시장에게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시장실 점거(3. 13)

- 대우조선해양지회 소속 조합원 30여명은 거제시장 집무실을 예고없이 방문해 출입문을 부수고 시장실 진입

※ 조합원들은 10:20경 시장실을 점거하고 11:00경 철수

- 한편, 대우조선해양지회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김상조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성사를 위한 국제 로비 활동을 멈추고 매각 철회에 노력하라”고 촉구(3. 14)

※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본계약 체결(3. 8)